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대통령기록관  
16대 대통령 취임기록

참여정부자료실  
정안대브리핑

봉하마을

봉하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추모페이지

▶ 말과 글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조회수 : 56630

등록일 : 2009.03.15 10:53

이전에는 세계경제에 관한 국제회의라면 주로 G7, 또는 G8, 이런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에는 G20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G20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그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G20이란 무엇인가? 다음 사이트에 'G20 재무장관 회의...' "부양 먼저" VS. "규제 먼저" 이런 기사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 그 기사 아래에 G20을 소개하는 글 두 개가 걸려 있네요. 우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G20\\_%EA%B3%B5%EC%97%85%ED%99%94\\_%EA%B5%AD%EA%B0%80](http://ko.wikipedia.org/wiki/G20_%EA%B3%B5%EC%97%85%ED%99%94_%EA%B5%AD%EA%B0%80) 읽어보니 G20이라는 것이 1999년도부터 시작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 왜 새롭게 뜨는지에 관한 설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밋밋합니다. 그래서 다른 블로그로 들어가 봅니다.

<http://blog.naver.com/yitahaing/80064986252> G20 코미디 낙서장

2009/03/14 10:12 제가 올리기에는 약간 민망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G20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 올립니다.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선 G7, G8, 이렇게 모여서 세계경제의 질서를 의논할 때에는 우리는 구경만 하던 처지였는데, 이젠 그 회의에 들어가서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이 BIS 회원국이 되고, 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우리나라를 핵심 로비 대상 국가로 분류했다니 기분이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책임도 무거워 지겠지요.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보호주의 안 된다. 경기 부양과 은행위기 해결에 힘을 모은다. IMF 대출채원을 확대한다. 이처럼 별 이견이 없이 대세를 이루어 굴러가는 주제들에 관해서는 그냥 대세를 좇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의견의 대립이 있거나 우리 같은 처지에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제에 관해서는 누구 편 의견이냐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바람직한 질서와 우리 같은 나라의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입장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보드를 보면 금융규제에 관하여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오네요.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46&newsid=20090314195004734&p=ytni&RELATED=R2>

그런데 관련기사 묶음을 보면 '오바마, G20 경기부양, 금융개혁에 초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4\\_200903120224586999](http://www.ytn.co.kr/_ln/0104_200903120224586999)

이 두 기사를 보면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05년 9.19선언 직후 BDA 문제를 불거졌을 때,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의 입장과 재무부의 입장이 서로 맞지 않아서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 우리경제, 특히 우리 서민경제에 큰 재앙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세계 금융제도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의논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G20이라는 회의가 그런 일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묘역 안내

9 이달의 비담화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진보와 보수의 논리가 곳곳에서 부딪칩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보수와 진보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일까요?

G20 유럽과 미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목해 봅시다. 유럽은 보수정권도 있고 진보 정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융규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들만 보면 미국은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은 금융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재무장관은 국제 회의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주목해 볼 일입니다.

어떻든 일단 G20이 등장한 것은 세계질서에 큰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G7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과거의 체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인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력하기



총평 97개

옆얼굴 2009.03.15 10:56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내사랑 2009.03.15 11:00

대통령님 처음으로 깊은감사의 마음과 큰절 드립니다..  
눈물이 마구 납니다..  
한국나가면 봉하에 제일먼저 들르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노짱생각 2009.03.15 11:02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마음 2009.03.15 11:02

혁...일요일 아침에 오셨군요...올리신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원더우먼 2009.03.15 11:14

공부하라고요,,, 예... 하겠습니다,,,ㅎ

파란노을 2009.03.15 11:20

어이구야! 우리 대장님이 이제부터 우리를 훈련시키실 모양입니다. 책을 놓은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큰일입니다. 하기사 책을 펼치기만 했지 오의를 제대로 체득한 경우가 없으니 전 D확점이라도 만족입니다.

축보구합니다.ㅋㅋㅋㅋ

그럼 전 스피어를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오후에 봉하를 가야할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이...

그리고 대장님! 아래에서 4번 째 단락 2번 째 줄에 세계가 아니고 세계아닌가요? 아싸!!

매그놀리아 2009.03.15 11:22

노짱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칸늑대 2009.03.15 11:26

\*^\_^\*  
오바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주목해 볼 일입니다.(2)

열공 하겠습니다...

반딧불빛 2009.03.15 11:45

열공 하겠습니다,친근하시고 다정다감한 노무현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칼의 노래 2009.03.15 12:00

글을 쓸때 사실과 논거를 덧붙이는 예를 들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공부거리도 던져 주시네요.

먼저, 머리가 빈 상태인가 확인... 텅텅...아하 잘 비었습니다. 늘 비어있긴 하지만...오늘도 채워야겠습니다.

참고로, 주주가치의 창시자란 책 웰치가 스스로 이를 "어리석었다"라고 말한 기사가 있습니다. 금융이란 돈의 힘으로 대주주들만 배불리며 자본의 편중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창시자의 고백입니다.  
(원문주소:[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4052.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4052.html))

하늘an바람 2009.03.15 12:34

헉..이런 낮 시간에도 올리시다니...  
요즘은 항상 긴장해야겠습니다.,  
올리신 글 열심히 읽어 보겠습니다.,,

마당 2009.03.15 12:34

공부하겠습니다...ㅎㅎㅎ

대륜 2009.03.15 12:50

열공하겠습니다.

모처럼 인사 드립니다.

봉하에 가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안하심을 빕니다.

산비둘기 2009.03.15 13:11

링크시켜둔 사이트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글들이군요.  
이러한 기사를 보고 돌아서나오는데, 추수 끝난 들녘의 빈 바람처럼 왜 행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지요...

G20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들이 모인 만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G20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는 반(反)세계화 운동가들의 시위가 열릴만큼 위상이 드높다는...

특히 영국 외무성 비밀문서가 '우등생 국가'로 지목한 11개국 중 한국도 당당히 포함되어있는 이 사실... 그만큼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아지고 공인되었다는 이 엄청난 현실...

(영국 외무성 비밀문서가 '우등생 국가'로 지목한 11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남아공)-> 이러한 결과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결과물이라 감히 단언하며,

-----  
“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영국 외무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나라는 내년엔 G20정상회의의 주최국이 되고 의장국이 된다. 고든 브라운 총리가 직전에 재무장관(藏相-장상-Chancellor of the Exchequer)을 지낸 경제전문가이듯이 이 나라 대통령도 건설사 CEO를 지낸 실용 경제의 전문가이고 'MB지수'란 걸 창안, 52개 생활물가를 집중관리해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민거나 말거나...).

노벨경제학상을 탈만한 업적이다. 게다가 입만 열면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외치시고....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도 대단하신 것이다. 청와대(학)에서 불철주야 'MB노믹스'를 연구 강의하시느라 바쁘시다. 그가 내년엔 '서울 선언'이라도 하시면 세계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계경제가 살아난다면 작은 나라 하나의 경제가 죽은 들어떨 것인가? 강부자가 살고 재벌이 산다면 서민과 중소기업과 월급쟁이들은 웃으며 죽어도 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적 홍보 로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과감한 투자를 하라, 하라!!!!!!!!!!!!!!”

-----  
이 야유섞인 절규가 그냥 절규가 아닌, 피를 토하는 고통속의 통곡 같습니다...ㅠ.ㅠ

고맙습니다...

노창사랑 2009.03.15 13:11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통님^^

현실에서 보면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이점에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것 같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불법승차거부 난폭운전과 기본급과 성과급을 조율한 버스기사의 운전행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버스기사는 이직율이 거의 없고, 택시기사는 늘 운전자를 모집하여야만 하는지를 눈여겨 보면 예산집행 기획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떻게 예산을 운영해야만 한 국가의 경영이 원만할수있을지 예측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과에 목메달려 작금의 경제위기가 도래했듯이 앞으로는 이를 적절히 분배하는 정책입안자의 일관된 노력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파할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국민 스스로 깨우쳐 세상을 움직이기에는 국민들 각자의 이기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칼의 노래 2009.03.15 13:16

공부하고 나서...

미국의 선 경기부양 입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얼마 전 대형금융사에 구제금융 지원한 것을 나눠먹기하는 썩어빠진 의식이고 보면, 먼저 금융제재에 대한 동의가 확정되고 난 후에 경기부양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부양하면 숨 쉴만하니 그때는 또 태클걸고 로비나 하려 들 것 같습니다. 이들의 입김이 재무부와 보호무역입장인 민주당에 영향을 미쳐 금융제재가 유명무실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내에선 오바마의 인식이 재무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방임적 자본주의시장을 이끌어난 그린스펀, 투기의 대명사인 조지 소로스, 편중된 주주가치를 주창해온 잭 웰치 등 대표적인 금융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관에, 우리는 아직도 작은정부와 금융자유만 외치고 앉아 있으니...능력이 없으면 남 하는 거라도 잘 따라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didflks 2009.03.15 13:27

아이들 점심주고, 잠시 짬을 내 들어왔더니....

노짱님, 저도 왜 갑자기 G20이지.

하면서 걱정도 되고, 엉뚱한 얘기가 나와, 또다른 보이기 위한 외교는 아닌지, 가서 품생만하는건 아닌지...

무심코 지나친 경제 이야기도 노짱님이 올려주시면 꼬옥 알아서 숙제를 해야될거 같아, 다시 찬찬히 읽고 생각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부위침 2009.03.15 13:37

오바마는 일정한 보호무역주의와 금융의 방임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합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방책으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지 않을까요?

소박한 들꽃 2009.03.15 13:46

대통령님 글과 관련 블로그 글을 읽고

이런시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

믿음과 신뢰감이 갈텐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처하고 진행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좀 좋아 질런지...감사합니다

늦었지만 2009.03.15 14:14

감사합니다.

롱각쥐 2009.03.15 14:48

미 재무장관과 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아마 재무장관은 주로 금융계를 대표로 하는 영향력이 큰 소수 거대 자본가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니 만큼 다수의 약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이것은 바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비록 없다 하더라도 자본가나 서민이나 투표권은 하나뿐이라는 실리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이해가 기저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세계의 정치, 경제의 안정 도모란 기치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참여자들만에 의해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도출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어떠한 견제나 감독도 없이 강자들의 권익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쨌든 G20처럼 영향력의 경중유무를 떠나 참여자를 늘린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적어도 안전에 대한 토의과정이 공론화 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소수의 권익보다는 다수를 위한 합리적 대안마련에 좀 더 진일 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지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권익을 대변하고자 주장하고자 해도 창구가 없었는데 이제는 결정적 영향력은 없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현 정부가 그 소중한 창구를 잘 활용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만...솔직히 많이 회의적입니다...

고민하고 공부하시는 노대통령님이 절절하게 그리운 암울하고 벽벽한 시국입니다...항상 건강 하십시오...울해안에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급수 2009.03.15 15:02

부끄럽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공하겠습니다.

터진후라이 2009.03.15 15:13

노공이산님 종종 만날수 있으니까

행복 합니다.^^

공부를 거꾸로 하든 옳게 하든..

지금 이리 소통하고 있는 이 현상자체에게

행복하고요.

참고자료를 이끌어 와서..증빙자료를 가지고.

눈으로 확인사살해 가면서..이해를 구한다는..취지의

본보기를 실천해 보여 주시고 계신것 같아요.

타이틀을..던져두고..자료를 보여주고..

댓글들로..소통하고..

이 모든현상들이..다 공부 입니다.^^

며칠전에 만든 화포천관련 gif이미지를 이곳에 가져올줄 몰라 질질 메다가..ㅋㅋㅋ  
미완의 모습이지만.(참여사진관)에 두었어요.  
마음은 강렬한데..숨쉬는 미숙이고..^^;;  
그렇지만 예쁘게 보아 주세요.  
휴일..행복하게 지나세요.♡

명민킹왕짱무현 2009.03.15 17:35

대통령님..제가보낸쪽지좀 읽어주세요^^  
미소짓게 해 드리고싶어서 유머쫘게  
보냈는데^^아직 미열람이시네요..쩍~~  
앗~싸~노무현대통령님 바로아래 덧글 ㅎㅎ  
로또 당첨된 기~분^^

수줍음 2009.03.15 17:36

이 글을 보며 님의 열정을 느낍니다.  
'한 세상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순수 2009.03.15 17:37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노짱님..보고 싶습니다..

지예사랑 2009.03.15 18:13

국가간의 회의체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산딸기 2009.03.15 18:31

각 언론사/신문사의 관련 기사 및 사설 등의 자료를 찾아 모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내서사람 2009.03.15 18:39

학교 다닐때도 공부 별로였는데 나이 들어서 할려니 힘드네요.  
그러나 노짱님이 하라시면 열공하겠습니다^^\*

緞조중동 2009.03.15 18:49

제가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대목도 있고..... 아문튼 대통령님 덕분에 새로운 정보 배워갑니다...^^;;

황석산 2009.03.15 19:02

오늘도 공부를해야하네요. 잠오는데... ㅎㅎ. 그래도 열심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2009.03.15 19:26

저는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올렸습니지만, 산딸기님이 다른 곳에 올려 주신 어느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니 급격한 규제로 인하여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신용을 수축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경청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추가-그런데 오늘 경향 신문 기사를 보니 그럴 염려가 있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igna 2009.03.15 19:44

2005년도 누리마루에서의 APEC 회담이 문득 생각납니다.

진영지기 2009.03.15 20:01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없는 규제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맞물릴때,

특혜라는 오해를 불러오지않을 까요??

더군다나,

소수를 위한 규제라면 더욱더 위험할듯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와 진실성을 먼저 쌓는게

순서가 아닐꺼??

더군다나 현정부의 1년을 되돌아보면

웬지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안한 심정이....

농부만세 2009.03.15 20:41

지난번에는 안보리 결의안을 앞으로 주목하라고 숙제를 주시고 이번에는 금융 규제 문제가 어떻게 흐를지 주목하라고 숙제를 주셨네요. 저는 그런데 노공이산님이 제시하는 것과 항상 반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진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낭만식객 2009.03.15 20:44

좋은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산바다강 2009.03.15 21:13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푸를른솔아 2009.03.15 21:33

일요일도 노짱님께서 공부하시네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청죽지기 2009.03.15 22:21

쉽게 정리됩니다. 열공합니다.

안성사랑 2009.03.15 23:24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것과 알아야 할것을 하나씩 제시해 주시는군요.  
대학강의 시간같습니다.  
열공하게됩니다.  
모르는것이 많은지라 남들과같이 전문적인 글을 쓸줄은 모르나  
올려주신글은 열심히 읽고 습득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많은 가르침과 인도 부탁드립니다.

엔돌핀가득 2009.03.15 23:29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행복한 여자 2009.03.15 23:54

어떤 분야던 웬만큼은 채워야 끄집어 낼 수도 있는데 워낙 채운게 없으니 끄집어 낼 것도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운 위치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글로 저의 위치를 일깨워 주시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의 여러 글만 읽어도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공이산님의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Gates 2009.03.15 23:55

대통령님도 힘들실텐데... 저를 포함한 국민들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잘 모르지만, 틈틈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행수 2009.03.16 00:0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또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kjj7011 2009.03.16 00:17

잘 읽었습니다.빠놓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도 규제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나녕 2009.03.16 00:49

오늘은 C20에 대해 여러 올라온 자료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소 2009.03.16 06:30

노무현님,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민주화, 좌파, 진보라고 하는 이념적인 단어는 입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였다가 개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터이니깐요.

말이 아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언행을 진솔하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말로는 민주화를 부르짖지만 정작 언행이 자유 민주시민의 모습입니까?  
말없이 묵묵히 민주화를 실천하십시오.

우리나라 어린아이의 눈에 비치는 민주화란  
가정경제는 뒷전으로 돌리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오직 손 흔들고 투쟁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아이의 눈에 비치는 민주화란  
보호막의 뒷전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를 나열하면서  
젊은 이들을 부추기는 언동만을 일삼는 행위를 민주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라는 단어, 진보라는 단어 등 이념적인 단어는 입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  
이 일만으로도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한민국의 주인 찾기 운동이 앞장선다면  
그리고 개인소득배가운동에 앞장 선다면  
그 운동은 성공할 것이고 당신은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시민이 되어 작은 실천을 보일 때입니다.  
말 장난은 그만 두고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으로 만드는 일에 한 손을 보탬 때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망가지는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진흙탕에서 덩구는 모습이 못내 아쉽습니다.

푸른소나무@ 2009.03.16 09:45

대통령님 공부잘하고 갑니다....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광개토왕 2009.03.16 10:30

진짜..로..고맙습니다///  
노前대통령님..사랑 합니다..

보미니&성우 2009.03.16 11:07

일단 댓글부터 달고 숙제 내신거 공부하러 갑니다~~~

사계절 2009.03.16 11:12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나라-특히 정부가-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수의 서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앞으로의 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올것이 분명합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노무현 前대통령님의 조인과 지혜를 경청하고, 사리에 맞는 판단과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 2009.03.16 13:18

노짱님... 혹 봉하에 군자란 없으시면 분양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

없음 2009.03.16 13:31

노짱님이 올려주시면 꼬옥 알아서 숙제를 해야될거 같아....

존경하는노무현 2009.03.16 16:37

노공이산님 한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학자들이나 전문가 정치인들은 그런 노력에 관심이 없나 봅니다 한국의 문제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한국과 괴리가 많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주의 그리고 신자유시장 주의까지 옛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해 중국도 개방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노공이산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궁금 합니다~

통일 2009.03.16 17:41

회원님들 ^^  
노짱님 분만아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 !!

유다서 2009.03.17 10:25

g30이든 여튼 간에 국내에서 왈가 왈부함이 모자리는 것..

cjsals 2009.03.17 17:37

감사합니다~

늬은이 2009.03.17 17:53

무식한 늬은이라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저 생트집의 달인들이 또 물어뜯는 빌미? 는 있지않나 싶어 꼼꼼히 읽었는데 꼬투리 잡을 구석이 없어 안심이 됩니다<죄송> 건강 잘 챙기십시오 - 부산에 사는 늬은이 -

안웬리 2009.03.17 18:31

101번째 추천을 제가 때렸다는..... 역시 노공이산님은 애들하고 노시는 모습이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정말 애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울 애들 날 풀리면 꼭 한번 가야되는데... 껌... 마눌 설득시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ㅎㅎㅎ 올해 안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

전월성 2009.03.17 18:47

잘읽어 보았습니다. 항상 공부할수있는 기회를 주시는것 같습니다.따뜻한5월에 만날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demon 2009.03.17 21:38

국민들의 진정한 대통령으로 역사를 장식하실겁니다.

마산골목대장 2009.03.17 23:05

국민들의 진정한 대통령 노무현

마당쇠2 2009.03.18 03:00

배달민족 역대 최고의 지도자 존경합니다

짐주 2009.03.18 11:39

이 글을 읽으며 국제정세에 대하여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듯 느껴지네요..  
나 자신이 무자계 신분상승된 느낌인데요^^\*

노짱사랑 2009.03.18 18:03

뽕소님 보세요//

아직도 세상 모든것이 돈으로만 보입니까???  
부국강병도 좋고 소득증가도 좋지만 이런것을 더 빨리 도달할수있게하는  
근거는 결국 인간성 회복입니다..

짜가지없는 가장이 돈만 많이 벌어오면 그 가정은 만사형통입니까??  
설령 많이번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수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이 전제되고나서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친일과와 병역면제자 및 각종 범죄경력이 압도적으로 월등한  
한나라당류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 지금 어떻습니까???

개차반인 사람이 무슨 경제를 책임집니까???

님이 다니는 회사의 오너가 개차반이라면  
그 회사는 얼마나 지속될수있을까요???

그로키시니어 2009.03.18 21:00

노공이산님의 글은 웬지 가슴에 깊게 와 닿으면서..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것 같아요...요즈음 노공이산님의 글을 읽으며 많은 공부  
를 하고 있답니다... ^^\*

그로키시니어 2009.03.18 21:02

서울에서... 노공이산님의 강의를 직접 듣고 싶어요...그런 기회가 있음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이 존재하는 세상 2009.03.18 22:28

"길은 이것 하나다"라고 들려지는 목소리만 믿지 말고, 그것에 관한 다른 여러 목소리도 나라 밖에 존재함을 알고 있는게 좋겠다...라는 뜻  
으로 들리네요...

코알라ksj7 2009.03.19 00:37

재무장관회의가 조금 더 늘어난 G20이 아니라 'G230'이 되야한다고 생각해요. 늦은 시각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노공이산님.

tmfgl8652 2009.03.19 20:03

상세하신 말씀 너무감사합니다 더욱더 잘이해했습니다 꾸벅

현재와미래 2009.03.20 19:14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AIG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성질 좀 급하네요. 취임한지 3달된 대통령한테.

기대가 커서 그런것이겠지요.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노대통령님처럼  
중심 딱잡고, 인기 상관없고 묵묵히 일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라소니黃 2009.03.20 20:45

자세히 풀이해 주시니 글로도 이해가 확 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클래식 2009.03.20 23:43

대통령님의 글월 잘 읽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너무너무 보고싶습니다.

언제나 청춘 2009.03.21 19:53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님이 계실 때에는 우리가 나라의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찬밥같이서 쓸쓸합니다. 사람사는 데에는 정이 묻어나야

사람사는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뭔지 참-내

푸른하늘59 2009.03.22 07:23

대총 무관심으로 넘어가던 일인데 잘 지적해주셨군요. G20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가 하  
나되어야 하겠습니까. 정신차려야지요

첼들러 2009.03.25 11:38

지당하신 말씀 ^^ 사랑해요~



한바탕웃음 2009.03.26 13:23

요즘 여러가지로 힘든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독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관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노공이산 남~~ 사랑합니다.

생각이좋아 2009.03.31 02:21

노무현 전 대통령님. 힘내세요.

희연맘 2009.03.31 15:09

항상 건강하세요!!!

이구년 2009.03.31 22:05

노공아저씨 힘내세요, 몇주전부터 저도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어요.서서 몇자 쓰는데 요즘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나고 사는게 이런 거구나..싫어요. 하지만 노공아저씨도 힘내세요.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거예요

양지나무 2009.04.01 12:34

누가 뭐래도 ,,, 대한민국호를 5년간 가장 잘 이끌어 주신

위대한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편안하고 즐거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뜻한 봄은 오려다 추위가 다시 엄습하는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비루봉이 2009.04.07 21:21

보고도 못본척 알아도 모르는척....힘드네요 노대통령님 힘내세요 그들이인간이라면 단한사람이라도 정의를 선택하리라 믿어봅니다.

거창때기 2009.04.15 10:12

찬찬히 읽어 보려고 모셔갑니다..감사합니다^^

왈순아지메 2009.04.17 19:09

항상 존경하고픈 우리의 대통령님...

따뜻하고 열정이 가득하신 참 좋은 대통령님을 ...  
늦게야 알게되었네요  
컴퓨터배운거 참 잘했구나 생각하지요

종모 2009.05.25 01:22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뜻을 거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처음이지 희망을 보았었습니다.

성터 2009.06.02 03:18

살아 생전 노짱님의 피끓는 대선 출마 연설을 다시 보며 또 눈물 흘립니다.  
3년반 남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38354>

넉넉한마음 2009.06.06 10:54

국익을 위하시는 마음을 느끼겠습니다 진보나 보수를 넘어서는 더큰 흐름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진보는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사대주의자나 반민족행위를 해온 기독교자들이 보수라 자칭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론적인 보수주의적 가치가 있는사람들도 한 국특성상 진보로 분류 되는것 같고요 어쩌면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적일지도요

beaconlight 2009.06.08 03:58

당신의 글을 읽고서 또한번 읊니다. 당신께서는 정말로 이나라의 영원한 대통령이셨군요...귀하신 당신 가신게 안타까워 이 비통한 마음 어찌한답니까...살아계셔야하는 분께서,,왜,,왜,, 정말 신은 잔인합니다...

그대의제자 2009.06.08 21:00

노짱님의 크고 넓은 혜안을 이제서야 알게되다니  
가슴에 피멍이 들 일입니다.  
정말 정말 바보같은 제가 뭉습니다.

센스모아 2009.06.23 01:30

공부하는 대통령!!  
이렇게 궁금한게 많고, 아시고 싶은게 많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게 많은데  
다 놓고 어떻게 가실수가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보고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롤링브레인 2009.06.24 02:40

저 글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롤링브레인 2009.06.24 02:42

과거 상대론자였던 아인슈타인과 양자론자였던 닐스 보어가 현대 양자 역학의 운동을 논하면서 이런 예기를 주고 받았지요...

롤링브레인 2009.06.24 02:43

아인슈타인은 절대론자라고 불수 있었는데, 그는 전자의 움직임은 유일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고 그러한 궤적의 함수는 존재할꺼라는 당

위성에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예기 했습니다.

롤링브레인 2009.06.24 02:46

그에 대응하여 닐스 보어는 이런 예기를 하였지요.  
"그러한 함수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측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우리가 전자의 움직임을 측정하려고, 전자 현미경을 들이대는 순간 그들의 움직임은 전자 현미경의 전자에 의해서, 본래의 궤도를 벗어 난다고..."

롤링브레인 2009.06.24 02:51

위의 두 일화를 이용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주장하는 금융정책의 방향은 상응한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런 추론은 상보성의 원리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결론을 예기함은 지금 시점에서 뭐하고,,  
하여간  
우선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현대 경제학의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리와 위의 두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도 얼추 비슷한 논리 일것입니다.

롤링브레인 2009.06.24 02:53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이고...

평화의 집 2009.09.29 23:02

G20 의장국 개최 얘기에 명박이 얼굴이 환해졌는데, 대통령님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한 성과들이 차기 2~3년간 계속 나타날 것이라 하셨는데, 예언이 적중하듯.. 남에게 밥상 다 차려주시고 떠나셨는데, G20개최란 명박군의 자찬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 안타까운 마음만 들까요..

촌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38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27315	운영자	2009.07.22
37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4518	운영자	2009.07.22
36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2938	운영자	2009.07.22
35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2701	운영자	2009.07.22
34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13700	운영자	2009.07.22
33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387842	노무현	2009.04.22
32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289418	노무현	2009.04.21
31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354943	노무현	2009.04.17
30	부탁드립니다 (971)	157172	노무현	2009.04.08
29	사과드립니다. (1246)	186142	노무현	2009.04.07
28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130865	노무현	2009.03.19
현재글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56630	노무현	2009.03.15
26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26082	노무현	2009.03.13
25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30603	노무현	2009.03.12
24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26668	노무현	2009.03.07
23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16585	노무현	2009.03.06
22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52297	노무현	2009.03.05
21	연속극 끝났는데... (271)	119264	노무현	2009.03.05
20	정치하지 마라. (275)	109593	노무현	2009.03.04
19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28450	노무현	2009.03.01

